



“올림픽보다 AG 金 더 힘들다”

레전드 말하는 나의 아시안게임

1 유도 하형주

1986서울AG, 내 생애 가장 힘들었던 훈련
2002년에는 부산AG 개최 위해 시의원까지
인천서 레전드 대회기 들어... “1회성 아니다”

19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제 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회식. ‘유도 영웅’ 하형주 동아대 교수(52)는 ‘유도 레전드’ 자격으로 배드민턴 박주봉, 탁구 현정화, 역도 장미란 등과 함께 대회기를 들고 입장했다. 하 교수는 1984년 LA올림픽 유도 -95kg급에서 금메달을 따낸 유도 중량급의 전설적 존재다. 그러나 정작 하 교수는 “올림픽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더 힘들었다”고 떠올렸다. 선수로 된 아시안게임은 서울 대회가 유일했지만 부산과 인천 대회까지 한국에서 열린 3차례의 아시안 게임 모두와 각별한 사연을 지니고 있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의 추억

1984년 LA올림픽 금메달로 하형주는 한국 유도의 간판처럼 각인됐다. 하형주가 세계를 평정하자 유도 중추국 일본은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일본은 1985년부터 하형주의 저격수를 찾기 시작했고, 그 적임자로 쓰기 히토시를 낙점했다. 쓰기이는 일본 국내에서도 1인자가 아니어서 거의 정보가 없었다. 미지의 상대에게 하형주는 세계선수권에서 패배해 우승을 내줬다.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인 하형주는 1년 후 서울아시안게임에서의 설욕을 위해 지옥훈련을 했다. 하 교수는 28년이 흐른 지금도 “내 유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게 훈련했던 시기”라고 떠올렸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고 결국 결승에서 쓰기이를 잡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 교수는 “올해로 LA올림픽 금메달 30주년이라서 지인들이 25일 부산에서 기념식을 열어준다. 그 자리에 쓰기이도 초청해 해후가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하 교수에게 서울아시안게임은 쓰기이를 쓰러뜨리고 집념을 실현했던 대회로 기억된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의 추억

하 교수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지만 부산 체고~동아대를 거쳤다. 성공관대에서 스포츠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인 동아대 교수를 맡고 있다. 말투에도 부산 사투리가 묻신 풍긴다. 이런 하 교수가 2002년 부산아시안 게임의 산파였던 사실은 이제는 희미한 기억이다. 하 교수는 “부산은 김영삼 대통령이 나



2002 부산아시안게임 때 ‘유도 영웅’ 하형주(오른쪽) 교수가 복합의 ‘유도 영웅’ 계승회와 함께 성화 최종점화자로 인사하고 있다. 하 교수는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유도 레전드’로 배드민턴 박주봉 등과 함께 대회기를 들고 입장에 많은 박수를 받았다.

오기 전까지 아권 성향의 도시였다. 그러다보니 지역 발전이 더뎠다. 부산을 발전시키려면 전국체전 수준을 넘어 아시아대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 교수가 주도되어서 100만 시민운동을 전개했고, 시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개최가 확정된 뒤 아시안게임 조직위 집행위원이 됐고, 개막식에서 최종 성화 봉송자로 선택됐다. 하 교수에게 부산 아시안게임은 자신을 길러준 고향을 향한 보은이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선 레전드로

개막식에서 하 교수는 역도 장미란, 탁구 현정화, 육상 백육자, 하키 신정희, 배드민턴 박

주봉, 핸드볼 윤경신, 체조 여흥철 등과 함께 대회기를 들고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을 수놓았다. 하 교수는 “레전드 8명에 내가 끼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잊지 않아준 국민들에게 고마운 마음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스포츠 영웅들을 1회성 이벤트로만 우대하는 것 같기도 해 씁쓸한 기분도 들었다. 특히 개막식 최종 성화 봉송자가 인천 출신 체육인이 아니라 한류스타였던 것도 못내 섭섭했다. 하 교수는 “한국의 스포츠역사가 이제 100년이다. 업적을 이룬 체육인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줄 시스템을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인천 |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트위터 @matsr21

세팍타크로 정원덕 “4년전 광저우 눈물 값졌다”

대표팀 수비의 핵...광저우AG서 부상 아픔
일가족 10명 김천서 부천행...AG 金 응원



아시안게임 2회 연속 결승진출에 성공한 세팍타크로 남자더블의 피더 정원덕이 21일 부천 체육관에서 벌어진 예선 네발과의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둔 뒤 멀리 김천에서 응원을 온 부모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4년 전 흘린 눈물, 이번엔 값어치 받겠다.”

세팍타크로 남자더블대표팀이 결승에 올랐다. 22일 열리는 결승전 상대는 미얀마. 4년 전 광저우아시안게임 결승에서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있다. 대표팀은 “이번엔 반드시 설욕하겠다”며 칼을 갈고 있다. 그 중심엔 ‘피더(수비수)’ 정원덕(26·고양시청)이 있다.

●승부의 키는 정원덕이 쥐고 있다

남자대표팀 이기훈 감독은 결승에서 맞붙게 된 미얀마를 결코 쉬운 상대로 정의했다. 그는 “강한 서브를 막아내는 게 승부의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바로 정원덕은 상대의 서브와 화려한 킥을 받아낸다. ‘발배구’ 줍으로 명명할 수 있는 이 종목에서 배구의 리베로와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투지와 끈기가 없으면 좀처럼 도맡을 수 없는 포지션이기도 하다. 실제로 정원덕은 공을 쫓아 어느 곳이든 몸을 날리는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동료들에게 힘을 불어넣는다. 이 감독은 “원덕이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수”라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그는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한 차례 아픔을 겪었다. 미얀마를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2세트 중반 이규남의 부상으로 급격히 흐름을 잃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2002 부산아시안게임 서브 종목(원 안에서 동료들과 패스를 주고 받는 횡수가 많은 팀이 우승) 이후 최고 성적인 은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만족보다는 아쉬움이 컸다.

●김천에서 상봉한 가족의 힘으로!

정원덕의 아버지 정민현(56) 씨는 아들들의 승부 근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는 세팍타크로를 시

작하곤 했던 김천 아포중 1년부터 아들을 굳게 믿었다. 부모의 완강한 반대로 복싱의 꿈을 접었던 자신과 같은 아픔을 주기 싫었다. 대신 아버지는 한 마디만 거들었다. “어떻게 중간에 포기할 생각만 하지 말라.”

아들의 열정은 대단했다. 아포중은 정원덕의 1년 선배들로 창단 멤버를 꾸렸지만 모두 중도하차했다. 그만큼 고된 운동이었다. 하지만 정원덕은 포기할 못했다. 오히려 지독한 연습벌레였다. 집 근처 나무에 공을 묶어놓고 매트리스를 깔아 수천 번 넘어지면서 공중에서 공을 차고 또 차다. 시간이 켜켜이 쌓여 청소년대표를 지냈고, 2008년 마침내 첫 성인대표가 됐다. 어머니 이성옥(53) 씨는 “정말 뿌듯했다. 힘들어도 불만 한마디 없고, 스스로 모든 걸 해냈다”고 만이 자랑스러워했다.

일가족 10여명은 20일 고향 김천에서 올라와 경기장에서 합성을 내지르며 정원덕에게 큰 힘을 북돋아주고 있다. 아버지는 “광저우에서의 눈물을 알고 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표포를 했던 금메달을 꼭 목에 걸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어머니도 밝은 웃음과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부천 | 박성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라오스 준결 지각 몰수패 세팍타크로 남자대표팀 몰수승 결승행

“이런 황당한 경우가...”

세팍타크로 대표가 열리고 있는 21일 부천체육관. 더블(인제 경기) 종목에 참가중인 대표팀의 김영만(28·청주시청)과 정원덕, 임안수(이상 26·고양시청) 조는 이날 오전 네발을 꺾고 3연승으로 A조 선두에 올라 준결승에 진출했다. 오후 2시부터 치러지는 B조 2위 라오스와 준결승을 대비하기 위해 가볍게 몸을 풀었다.

준결승 시작을 조금 앞두고 정내 아나운서의 선수 입장 소개가 울려 퍼졌다. 같은 시각 진행되기로 했던 일본과 미얀마의 선수단. 그리고 심판진이 2번 코트에 먼저 자리 잡았다. 하지만 곧이어 등장해야 할 한국과 라오스 선수들은 좀처럼 코트 안으로 나오지 않았다. 선수단 출입구에서 세팍타크로 남자대표팀 이기훈 감독(49)이 감독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는 모습만 눈에 띄었다.

시간은 그렇게 10여분이 흘렀다. 10여명의 감독

관은 분부석 쪽에 모여 대책회의를 했고, 이내 경기를 진행했다. 한국선수들은 코트에서 20여분 동안 몸을 풀며 상대를 기다렸다. 그러나 라오스 선수단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주심은 라오스의 실격패, 즉 한국의 2-0 몰수승을 선언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따르면 경기 시작 20분까지 경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몰수경기로 처리된다. 심판진은 이 규정을 적용했다. 이 감독은 “국제대회에서 몰수승을 거두기는 처음이다.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좋은 경기로 답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결승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내겠다”고 굳은 각오를 드러냈다.

라오스는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조 2위를 차지하며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경기시간을 착각해 선수촌에서 출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수들은 40분이 훌쩍 지난 뒤에야 경기장으로 뛰어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라오스는 3~4위전을 치르지 않고 공동 동메달을 수여하는 이 종목 관례에 따라 동메달에 만족해야만 했다.

부천 | 박성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 @simss23

특수 강판 지붕 공사

최장36개월 할부가능



- 여러번 해도 실패했던 방수를 현대방수는 단 한번의 시공으로!!!
- 지긋지긋한 누수도 잡아주고 멋진 기와형 지붕으로 확!!! 바꾸어 보십시오.
- 하자보증이 필요없는 반영구적으로 확실한 지붕으로 확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 보온과 단열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 귀하의 건물에 맞는 맞춤형 기와형 지붕으로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 강판재료 및 도소매 ★

- 일반주택 ■ 아파트, 빌라
- 박물관 ■ 기념관
- 교회, 사찰 ■ 공장, 창고

★하자이행증권 3~5년 발행(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현대방수 강판 지붕

☎대표번호 1544-2676